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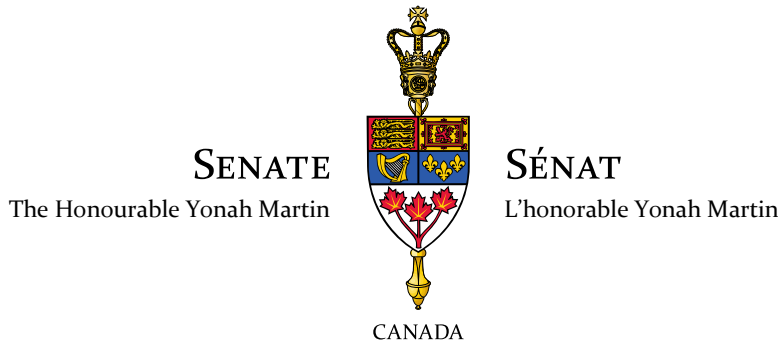
즉각발표
2021 년 3 월 1 일

대한민국 3.1 절 102 주년 연아 마틴 상원의원의 성명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일제에 의한 10 년간의 잔혹하고 폭압적인 식민통치 이후 1919 년 3 월 1 일, 비밀리에 준비한 단어들인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마음과 정신에서 계속 울려 퍼질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보복은 신속했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3 월 1 일은 억압에 저항하고 힘들게 얻은 민주적 자유를 수호하며 한국의 독립을 추구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로써 한국인들의 정신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 없이 독립선언문을 33 인의 용기있는 민족대표들을 기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34 번째 민족대표로 인정한 캐나다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했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맞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 절이 독립으로 가는 길고 험난한 길의 시작이자 공산주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침묵을 거부한 용감한 사람들로 가득한 길로 추모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자유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을 지켜준 전 세계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2021 년에도 한국전 70 주년을 계속해서 추모하며 현재와 과거의 캐나다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바친 희생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We will remember them. Nous nous souviendrons d’eux.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

-30-

연락처:

연아 마틴 상원 의원실

Grace.Seear@sen.parl.gc.ca

613-851-4250